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성공에 기여한 핵과학자들과 기술자, 군인 건설자, 로동자, 일군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수여식이 진행되었다

핵과학자들과 기술자, 군인 건설자, 로동자, 일군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수여식이 1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회의실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수여식에 참석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수여식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며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수여식에 앞서 축하연설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한 소식에 접하여 온 나라가 민족적자부심과 승리의 환희로 들끓고있는 속에 당중앙위원회청사에서 반만년민족사의 특대사변을 안아온 우리 당의 믿음직한 핵전투원들에게 당 및 국가표창을 수여하게 된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당의 명령을 받들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애국의 초침을 당의 승결에 맞추어 투쟁한 동지들모두는 역사에 길이 남을 영웅중의 영웅이며 애국자중의 애국자라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청사에서 직접 당 및 국가표창을 수여하게 된데 대하여 끝없이 감개무량하게 생각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번 사변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무변패한 우주의 신비함을 다 모아도 비길수 없는 큰 힘을 안겨주고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불패성과 강대성을 만천하에 과시하였으며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에 게 무서운 공포를 안겨주었다고 강조하



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난날 부국강병을 바라던 우리 민족의 역사적숙원이 로동당시대에 와서 현실로 되었다고 하시면서 미더운 핵과학자들과 기술자, 군인건설자, 로동자, 일군들에게 위대한 수령님들과 군대와 인민의 마음을 합쳐 당과 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열렬한 축하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동지들이 이룩한 영웅적공적과 위훈은 주체의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당력사와 더불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의 미더운 핵과학자들과 기술자, 군인건설자, 로동자, 일군들과 함께 가는 주체혁명의 앞길에는 앞으로도 영광의 천리길, 만리길만이 펼쳐지리라것을 확신한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는

적들의 강권과 전횡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횡포무도하고 불법무도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악착한 경제봉쇄와 군사적압박으로 우리 제도를 붕괴시키려고 피눈이 되어 사면팔방으로 달려들고있지만 준엄한 혁명의 년대기들에 그러했던것처럼 적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휘두르고 총을 내대면 대포를 내대는 강인담대한 정면돌격전을 벌려 적들이 최강의 핵보유국인 우리를 똑똑히 알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참가자들이 오늘의 공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우리의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두뇌전, 실력전에 총매진, 총열기함으로써 당의 핵무력건설사상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당은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을 안아

온 전체 참가자들의 위훈을 다 시금 높이 평가한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핵병기창을 지켜선 과학자들이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더 큰 성과를 거둘것을 바란다고 고무격려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자주의 기치, 선군의 기치 높이를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끝없이 빛내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용을 최상의 경지에서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목청껏 터쳐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랑독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성공에 기여한 핵과학자들과 기술자, 군인건설자, 로동자, 일군들에게 당 및 국가표창을 직접 수여하시었다.

열광의 박수소리가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를 제재한다, 전략무기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인다 하며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면서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다고 하시면서 적들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위협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당중앙의 명령에 따라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공간에서 미제를 피수로 하는 제국주의세력에 게 핵공격을 가할수 있게 핵무장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핵무장의 강화발전을 위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성공에 기여한 핵과학자들과 기술자, 군인건설자, 로동자, 일군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성공에 기여한 핵과학자들과 기술자, 군인건설자, 로동자, 일군들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청사로 부르시여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기발이 힘차게 나뭇기는 당중앙위원회청사앞으로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가 터져올랐다.

전체 참가자들은 역사적인 조선로동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승리와 영광의 해 2016년의 장엄한 서막을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열어주시어 선군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주시고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손을 저어주

시며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주체적국방공업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고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을 안아온 핵과학자들과 기술자, 군인건설자, 로동자, 일군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참가자

들이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수소탄시험을 성공시킨 그 기세, 그 기백으로 계속전진, 계속혁신해나감으로써 자위적 핵역제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의 구호가 터져올라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본사기자

백두령장을 모시여 승리하는 조선



↑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을 진행할데 대한 최종명령서에
수표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 105(2016)년 1월
← 정전협정문건을 검토하시고 비준하여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주체 42(1953)년 7월

얼마전 공화국의 각 신문들과 TV화면에는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을 진행할데 대한 역사적인 명령을 하달하시고 최종명령서에 수표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엄한 영상이 모셔져 보는 사람마다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심원하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략적인 결단을 내리시고 역사적인 문건에 수표하시는 절세위인의 존귀하신 영상 사진과 그 아래에 활달하신 필체로 씌여진 불멸의 친필.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승리와 영광의 해 2016년의 장엄한 서막을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열어제김으로써 온 세계가 주체의 핵강국, 사회주의조선, 위대한 조선로동당을 우러러보게 하라!

김정은
2015. 12. 15》

《당중앙은 수소탄시험을 승인한다.
2016년 1월 6일 단행할것!
김정은
2016. 1. 3》

그 한장의 사진은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이 행성을 뒤흔든 1월 6일과 더불어 영원히 역사에 새겨질 불멸의 화폭이었다.

그 못 잊을 영상사진을 보으며 걱정을 금치 못하는 사람들의 뇌리에 불현듯 떠올러지는 력사의 화폭이 있었다.

이미 반세기도 훨씬 더 지난 1953년 7월 미국의 내리막길을 선언하는 력사적인 조선정전협정문건을 검토하고 비준해주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태양의 모습이었다.

미국이 바친 항복서를 놓고 《미국놈들이 드디어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말았소.》라고 하시며 호탕한 웃음을 지으시던 강철의 령장.

당시 미국이 불의에 도발한 조선전쟁에서 청소한 공화국이 이기리라고

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었다.

그러나 3년간에 걸친 가렬치절한 조국해방전쟁은 조선인민의 승리로 끝났다. 전승의 자랑스러운 축포를 쏘아올린것은 조선이었다.

사실 미국은 전쟁을 도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조선인민을 너무나 알보았었다.

미군을 보면 북조선군은 흔히백산하여 도망칠것이라고, 《들쭍》사냥으로 심심풀이나 하다가 오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조선땅에 발을 들이밀었던 미군이다.

하지만 조선인민군의 즉시적인 반공격에 의해 미군은 오산에서 무리죽음을 낸 이래 련일 쫓기며 조선반도의 최남단까지 쫓겨나고 전쟁 3년간 가는 곳마다 수치스러운 패배와 죽음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조선인민을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을 라승한 영웅적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시고 승리의 영원한 7.27을 안겨주시분은 삼도왜적을 벌

벌 떨게 하시던 백두산의 호랑이,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이시였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 겨레와 세인은 날강도 미국에게 또다시 쓰디쓴 맛을 보여주는 력사의 대장거를 단행하신 천출명장의 단호한 결단력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조선의 수소탄보유, 그것은 침략과 약탈로 살찌운 미국을 흔히백산케 하고 세기를 이어오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총과산을 신고하는 특기할 대사변이 아닐수 없다. 핵으로 우리 민족을 끝없이 위협하여오던 미국이 조선이 단행한 수소탄의 폭음에 놀라 어쩔줄 몰라하고있다.

그것은 미국이 스스로 초래한 위기고 운명이다.

힘을 만능으로 여기며 행성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갖은 못된짓을 다하는 미국을 파멸의 깊숙한 함정에 밀어넣으며 자주와 정의의 새 세계를 펼쳐가시는 김정은장군님.

일본의 한 군사평론가는 공화국의 수소탄시험성공을 놓고 이렇게 분석하였다.

《핵보유이전의 조선에 대해서도 감히 군사적공격을 하지 못했던 미국이 당당한 핵보유국이 된 조선에 싸움을 건다는것은 자멸행위나 다를바 없다. 더욱이 조선의 최고령도자가 선대수령들의 명활한 군사지략과 담대한 기질을 그대로 계승하고 반미전면대결전을 이끌고있는 조건에서 미국은 그 어떤 군사적모험도 자기 나라를 중국적멸망으로 몰아갈수 있다는것을 각오해야 할것이다.》

미국이 핵무기로 조선민족을 위협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절세위인의 탁월한 령도를 받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수소탄보유국이 된 커다란 공지와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미국을 발아래로 굽어보며 강성국가의 령마루에 더욱 힘차게 내달려갈것이다.

본사기자 김명성

공화국은 첫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하여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존엄높은 국가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5천년민족사의 꿈과 리상, 포부를 이고 더친 핵폭음은 세기를 이어오며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을 추구하고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과의 대결을 종국적으로 끝장내기 위한 조선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의 선언이며 위대한 선군정치와 병진로선의 승리로 된다.

선군으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강성부흥의 앞날을 안아오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애국애족의 뜻이고 의지이다.

그이께서 선택하신 병진의 길이 없었다면 오늘의 민족사적 대경사와 환희를 상상할수 있겠는가.

한 인간의 선택은 개인의 운명과 전도에 국한되지만 령도자의 선택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 강약진퇴를 결정짓는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상과 제도가 다르고 저들의 지휘봉에 추종하지 않는다고 하여 전대미문의 정치적 고립과 경제적붕쇄, 군사적압박을 가해오다 못해 핵참화까지 들춰우려고 발광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침략책동에 맞서 자위적인 핵무력건설과 경제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탁월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고 전체 인민을 조국수호와 강성국가건설에로 불려일으

키시였다.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기에 일시적인 락이 아니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자강의 힘으로 영원히 담보하는 병영의 전략, 병진의 길을 선택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이다.

이 위대한 병진의 로선이 있었기에 불과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국방분야에서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났다.

지난 한해를 놓고보아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와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과학기술전당

승리와 성공의 비결

과 미래과학자거리,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평양양로원을 비롯한 만년대계의 창조물들, 사회주의선경마을과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 정보화, 국산화가 실현된 본보기공장, 표준공장들이 수많이 일떠서 전반적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는 새로운 진격로가 열리였다.

또한 하늘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 비행기가 날고 땅속에서는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가 달리는 자랑찬 현실이 펼쳐졌으며 사회주의바다항기, 과일항기가 넘쳐나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병진로선을 틀어쥔 결과 공화국의 군력강화에서도 더욱 놀라운 전변이 일어났다.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들이 더욱 현대화되고 실전을 방

불케 하는 훈련의 열풍속에서 인민군대의 싸움준비가 보다 완성되게 되었다. 지난해에는 신행만함선로켓시험발사의 성공에 이어 5월에는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발사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공화국은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해치려는 적대세력들을 임의의 수역에서 타격소멸할수 있는 세계적수준의 전략무기를 가지고 마음먹은대로 수중작전을 진행할수 있게 되었다. 이런 성과에 토대하여 올해 2016년의 서막으로 수소탄

승리와 성공의 비결

시험의 폭음이 장쾌하게 울려 퍼져 공화국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위적핵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었다.

반만년민족사의 한순간에 불과한 너무나 짧은 기간에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눈부신 성과와 기적들이 련이어 이루어지게 된것은 공화국의 병진로선이 얼마나 정당한 애국의 선택이였는가를 확증해주고있다.

위력한 핵무력우에 평화도 있고 인민들의 행복한 삶이 있기에 오늘도 매일도 공화국의 병진로선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최후승리의 지름길이다.

진정한 평화는 그 누구도 범접 못하게 자기의 힘이 강할때에만 지켜지고 담보된다. 공화국이 잘살기를 한사코 반대하는 온갖 적대세력들과 맞서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고 통성변영하는 길은 오직 자주정치, 핵강국의 위력을 굳건히 다지는데 있다.

강철의 령장의 신념과 배짱을 체질화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사납게 달려드는 제국주의세력과 끝까지 맞서 싸울것이며 핵무기가 령강들의 독점물이던 시대는 영영 지나갔다.

랭전이후 극도로 오만방자해진 미국과 추종세력의 적대행위는 오히려 공화국의 천만군민에게 정의로운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부단히 강화해나갈 의지를 더더욱 굳혀줄뿐이다.

공화국이 선택한 병진로선은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키실수 있는 가장 정당한 로선이다. 천리해안의 예지와 선견지명으로 천만년부흥할 민족의 먼 앞날까지 내다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하늘이 낸 위인이시고 그이를 령도자로 모신 조선민족은 복받은 민족이 아닐수 없다.

적대세력의 도전을 짓부시며 한번 선택한 정의와 신념의 길에서 추호의 드림도 모르는 백두의 령장 경애하는 원수님은 주체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시이다.

비밀한 선군정치의 방략, 최후승리의 전략을 펴나가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민족의 꿈과 리상인 사회주의강성국가, 통일강국의 새아침이 밝아오고있는것이다.

김춘원

훈련을 싸움맛이 나게

— 지난해 12월초 조선인민군 제4차 포병대회가 있었다.

포병무력을 인민군대의 화력타격의 기본력량으로 보시고 포병무력강화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회에 참석하시어 포병훈련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문제, 포무장장비들을 현대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 등 포병싸움준비완성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쟁은 언제 한다고 광고를 내지 않으며 그 어떤 불의의 사태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하자면 언제나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전투근무를 강화하고 적들이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령도와 령해, 령공을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즉시에 멸적의 포화를 들춰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포병훈련에서는 포병화력의 명중률을 높이는데 화력을 집중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화력단위들이 완벽한 실전능력을 갖추고 빨찌산식포병전법을 능숙히 활용할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싸우는 군대맛이 나게 전투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자위적억제력을 천백배로

두해전 6월 어느날 인민군대 전략군의 전술로켓 발사훈련이 있었다. 발사 전과정에 대한 과학적계산과 비행궤도와 목표수역에 대한 안전검열수색을 빈틈없이 진행한데 기초하여 진행한 훈련에서는 자기의 힘과 기술로 개발한 전술로켓들의 성능이 검증되고 로켓사격방법이 완성되게 되었다.

그날 훈련을 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에게 가장 소중한 평화적환경은 그 누가 마련해주는것도, 그 무엇을 팔고살수 있는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진정한 평화는 그 누구도 범접 못하게 자기의 힘이 강할 때에만 지켜지고 오직 자기의 힘에 의하여서만 담보되는만큼 조국의 안전과 평화를 사수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억제력을 천백배로 더욱 다져나가는데 최대의 박차를 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본사기자

자위의 군력을 강화하는 길에서

자랑차다 주체의 핵강국

공화국의 첫 수소탄시험성과 관련한 충격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거대한 수소탄폭음의 여파와도 같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수소탄시험이라는 극적인 사변, 민족사적인 패거리를 안아온 공화국의 위상은 해외에 사는 우리 동포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자랑과 영광으로 되며 이런 위대한 조국을 가진 해외조선공민들의 자긍심은 이를테 없다. 고도의 핵기술발전의 산물인 수소탄은 세계적으로 보유국이 몇개밖에 안되며 공화국은 첫 수소탄시험에 완전성공하여 핵보유국의 진렬에 당당히 들어섰다.

수소탄시험의 성공적인 장쾌한 폭음은 결국 최대로 강화된 공화국의 막강한 힘과 위상의 표시이다.

그 힘과 위상을 공화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은 두려워하고 있으며 공포에 질려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리유는 명백하다.

핵폭동이를 휘두르며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나라들과 국력이 약한 나라들을 엄청난 위협으로 공갈하던 그런 시대가 이제는 종말을 맞았기 때문인 것이다.

이제 더이상 핵무기는 제국주의 독점물이 아니다. 공화국의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은 제국주의 핵무기독점에 거대한 균형을 일으켰고 그로 하여 제국주의 강권과 전횡의 시대는 영영 막을 내리우게 되었다.

공화국의 수소탄은 다른 나라들이 가진 수소탄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거기에는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핵장약과 함께 역센 자주의 녀이 깃들어 있다.

지금 세계가 얼마나 법석 떠들고 있는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군사적위협과 《제재》 폭동이를 휘두르며 공화국이 핵을 포기하는 길을 택하도록 갖은 발악적책동을 다하였다. 그러나 공화국은 핵포기가 아니라 핵억제력강화로 맞섰고 2016년의 서막을 보란듯이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으로 열었다.

이것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추호도 양보하지 않으며 자위의 힘으로 끝까지 지키려는 공화국의 자주적 결단이 이루어낸 쾌승이다.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는가.

돌이켜보면 자주가 민족운명 개척의 길이라는것은 곡절많은 반만년민족사가 깨우쳐준 피땀 어린 교훈이다.

사대가 극도에 달하였던 조선봉건왕조말기의 현실에 대해 어느 한 소설가는 이렇게 서술한바 있다.

《...저 해양너머의 식민주의자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제멋대로 별명지어 (동방의 은둔국) 이라 불려오는 이 나라-조선의 밤은 길었다.

...조국의 운명과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고 국가백년의 대계를 세울 때는 바로 이때런만, 이 나라 량반넌네들의 잠은 좀처럼 깰줄을 모른다.

대체 어찌할 작정인가? 그냥 잔다. 세상 모르고 그냥 자고 그만이다. ...》

제 정신을 가지고 국력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대국들의 비위를 맞추며 정사를 하다가니 끝내 외세에게 나라가 먹히우는 비극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20세기초 외세의 발굽에 짓눌려 굴욕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던 우리 민족을 두고 조선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방어를 위해서 손가락 하나 쳐들지 못하는 민족이라고 모독한 나라에 있었어도 일제에게 강탈당한 조선을 구원해주겠다고 나선 그런 나라는 없었다.

약육강식이 란무하는 행성의 오늘이 깨우쳐주는 교훈도 자못 크다.

지구상을 둘러보면 미국의 눈치를 보거나 대국의 비위를 맞추며 압력에 굴종하고 머리를 수그리는 나라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것은 자주정신이 박약하고 자기를 지킬 힘, 제국주의의 횡포를 막아낼만 한 자강의 힘이 없기 때문이다.

침략자의 횡포와 전횡으로 나라가 붕괴되고 불안정한 정치체제로 피난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분쟁과 내란의 소용돌이속에 휘말려 파국에 직면한 나라들과 민족들이 구원을 청탁하고 있지만 그 청탁에 귀를 기울이

는 나라는 이 행성에 없다.

력사와 행성의 이 뼈저린 교훈은 바로 그 어떤 열강도 자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될수 없으며 자기를 지킬 힘이 없는 약소국이나 민족은 어차피 불행한 운명에 처한다는것을 가르쳐준다.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주와 존엄의 길, 자위의 길을 역세계 걸어가고 그 길에서 수소탄시험성공의 특대사변도 이룩한 공화국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가.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의 압력과 위협, 강권이 지배하는 국제질서에 겁을 먹고 세계가 못한 일을 그토록 당당하게 가슴후련하게 해낸 조선이야말로 자주와 정의의 성새이고 이 행성의 밝은 미래라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조선은 명실상부한 핵강국으로 등장하였다. 공화국이 자주와 정의의 수소탄을 틀어쥐었으므로 하여 제국주의의 횡포한 세계제패전략에 통구멍을 내고 나라를 굳건히 방위할수 있는 최상의 억제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마음놓고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게 되었다.

수소탄시험에서 성공한것으로 하여 배짱이 더 든든해지고 제국주의를 발밑에 굽어보는 승리자의 거연한 자세로 보무당당히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나아가는 공화국은 참으로 이 지구상에서 진짜 강국이다.

이번 공화국에서의 첫수소탄시험 대성공은 만고절세의 애국자, 자주와 정의의 위대한 수호자이신 김정은원수님의 자주적신념과 강철의 단력, 드림없는 선군의지가 안아온 빛나는 승리이다.

그이의 자주적 대, 단력과 배짱은 온 세인이 감탄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새로 건설한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찾으신 날에도 그이께서는 우리의 지위는 적대세력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결코 달라지지 않으며 우주개발사업은 그 누가 반대한다고 해서 포기할 사업이 아니라 하시면서 주체조선의 위성은 앞으로도 당중앙이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런이우주를 향하여 날아오를 것이라고 힘있게 선언하시었다고 한다.

그이께서는 미국의 날로 가증되는 침략위협에 대처하여

자위적억제력을 비약적으로 강화시키려고 수소탄시험을 단행할데 대한 전략적인 결단을 내리시고 시험을 단행할데 대한 명령을 친히 하달하시였다. 온 세상을 들었다 놓은 수소탄의 퇴성은 백두산악과 같은 그이의 역센 단력과 선군의지의 파시이다. 그것은 미국의 한손에 거머쥐시고 나라와 민족을 통일강국의 미래에 이끌어가시는 전설적령장의 승리의 장쾌한 선언이다.

청소한 공화국을 앞잡아보고 조선전쟁을 일으켰다가 수척스러운 참패를 당하고 내리막길에 들어섰던 미국이 조선에 의해 종국적인 파멸을 면치못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지금 세계의 진보적세력과 인민들은 공화국에 아낌없는 축하와 지지, 연대성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과 추종세력의 그 무슨 《제재》와 《국제적인 대응》은 겁에 질린자들의 맥없는 사대질에 불과하다고 랑소하면서 그런 《제재》와 《대응》은 아무런 실효성도 없다고 평하고 있다.

외국의 벗들이 터치는 이런

격찬과 지지의 모습들을 해외에서 보면서 나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을 더 뿌듯이 느끼게 된다.

자주로 존엄높고 자주로 위대한 강국의 위용을 떨쳐가고 있는 조선민족의 한성원이라는 이 무한한 자부를 안고 나는 해외에서 자주와 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 모든 열정을 다 바쳐나가겠다.

지금 온 동포사회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이 성공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우리 동포들은 너무 기뻐 조국의 하늘을 우러러보며 《조국찬가》의 노래를 부르고 불렀다.

...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뭇기오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 지리

그대를 영원히 사랑하리라

빛나라 이 조선 인민공화국

이 노래에도 있는것처럼 우리 조국이 천하제일강국으로 솟아오를 그날은 결코 멀지 않다. 자강의 힘, 자강의 위력으로 나라도 지키고 문명강국도 건설해가는 공화국의 앞길에는 영원히 승리만이 기약되어 있다.

재로씨야동포 오성재



원대한 인민의 모습

《우리는 수상님을 지지합니다》

태성리는 평양에서 남포로 가는 길녘에 있다.

전후 어려웠던 주제 46(1957)년 8월 27일이였다. 이날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되던 날이였다. 당시 강서군 태성리사람들도 인민의 대표들을 최고주권기관의 대원으로 선거하는 크나큰 기쁨속에 이날을 맞이하고있었다. 온 나라에 《태성할머니》로 알려진 김화숙할머니도 전선에서 련대장으로 싸우다가 희생된 만아들을 생각하며 일곱살 난 만손자 병성에게 자기의 공민증을 들고 너라고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날 선거에 참여하라고 손목을 잡고 선거장으로 달려갔다.

태성리의 대화선거장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흥성거렸다. 선거를 마친 사람들은 흩어질줄 모르고 흥겨운 춤판에 뛰어들었다. 김화숙할머니도 선거를 끝내고 남녀로소가 뒤엉켜 웃고 떠들며 노래하고 춤추는것을 구경하고있었다.

이때였다. 선거장앞을 가로질러간 평양-남포길로 승용차들이 달려오더니 서서히 멈추어서는것이였다. 지나가는 줄로만 알았던 승용차들이

선거장앞에 멎어서자 사람들은 모두 그쪽으로 눈길을 돌리였다.

그런데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차에서 내리시는분이 위대한 김일성주석이 아니신가.

뜻깊은 날에 흠모하여마지 않는 수령님을 뵈게 된 마을사람들은 크나큰 감격과 기쁨에 넘쳐 만세의 환호를 울리며 수령님결로 물결쳐갔다. 김화숙할머니도 마찬가지로 더 높기 전에 꼭 한번 만나뵈와 가슴가득히 차민치는 소원을 풀리라고 입버릇처럼 위우군 하던 김화숙할머니였다. 그는 그저 꿈을 꾸는 것만 같아서 연신 눈을 습벅이다가 목청껏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을 헤집고 수령님앞으로 나섰다.

김화숙할머니는 오매에도 그리던 어버이수령님을 뵈우게 된 북받치는 감격과 기쁨속에 《저는 평생 장군님을 한번만이라도 만나뵈는것이 소원이였는데 인제는 죽어도 한이 없

을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며 웃고름으로 눈물을 찍었다. 그때 김화숙할머니는 예순세살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신의 손을 꼭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있는 김화숙할머니를 정겹게 바라보시다가 할머니, 앞으로 더 좋은 세월이 오게 됩니다, 오늘보다 더 행복하게 될터이니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좋은 세월에 백살은 더 살아야 합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할머니의 생활형편에 대하여 알아보시면서 식량사정은 어떠한가고 물으시였다.

《우리는 수상님께서 따듯이 돌보아주셔서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올린 김화숙할머니의 마음은 밤잠도 휴식도 잊으시고 언제나 인민을 생각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을 더 잘 받들어모시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불이 일고있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에 꼭 맞는

조선로동당의 정책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질을 하고 로동당을 받드는 인민들의 진정은 꼬물꼬물 모르면서 인민생활이 어찌고저찌고 떠들어대는 종파놈들에 대한 증오로 피가 끓고있었다.

이런 생각이 겨워 수령님의 몫시 촉가신 모습을 우러르던 김화숙할머니는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가까스로 참으며 간절한 소원을 말씀드리였다.

《수상님! 얼굴이 많이 축간 것 같은데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종파놈들이 인민생활이 어찌고저찌고 떠들어대 이제 다 잘살게 되었으니 일없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이기지 종파놈들이 이기겠습니까? 녀려마십시오. 우리는 수상님을 지지합니다.》

애오라지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려는 일념으로 김화숙할머니가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뜨겁게 올린 말씀, 이것은 바로 준엄한 령사의 시기에 수령님을 우러러

따라나선 인민의 역센 신념의 목소리였으며 온 나라 인민의 심장에서 우리나라 간절한 소원이었던것이다.

전후의 어려운 나날 잘 입지 못하고 배를 뚫으면서도, 무거운 등짐으로 벽돌과 흙을 한짐 두짐 저나르며 로를 쌓고 언젠을 쌓고 재더미위에 집을 한채한채 지어나가면서도 락망을 모르고 용기와 신심에 넘쳐 싸워온 그 힘.

사면팔방으로 안팎의 원수들이 로동당을 공격하고 사회주의제도를 허물려고 발광하는 그 모든 시련을 감당해내면서 그 동요와 두려움을 모르고 오직 승리와 전진의 한길따라 싸워온 그 힘.

진정 그것은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인민을 굳게 믿으시고 인민은 수령님을 영원히 받들어 모시고 따르는 줄을래야 끊을수 없는 혈연적인 뉴대로 굳게 맺어진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김화숙할머니의 소박한 말씀에서 인

민의 목소리를 들으시였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보시였다.

주제 48(1959)년 12월 4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지도하시다가 두해전 8월 태성평에서 만나시였던 김화숙할머니에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군중은 이와 같이 우리 당을 믿었으며 우리를 격려하여주었다고, 우리는 이러한 군중의 신뢰와 격려에서 큰 힘을 얻고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주제 78(1989)년 1월 1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은 어떤 시련과 역경속에서도 흔들리거나 굽히지 않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수령님과 당을 충성으로 받들어왔다고, 기쁨 때도 슬플 때도 시련이 닥쳐올 때도 수령님과 당을 생각하고 자나깨나 수령님을 뵈고싶어하는것이 바로 우리 인민의 마음이라고 하시면서 태성할머니에 대해 뜨겁게 회고하시였다.

자나깨나 자기 령도자를 그리고 따르며 령도자의 주위에 굳게 뭉쳐 세상의 험로역경을 웃으며 헤쳐가는 위대한 인민의 모습은 오늘 김정은시대에 서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빛을 뿌리고있다.

본사기자 김영춘

자주는 통일문제 해결의 출발점

올해 신년사에도 밝혀진 것처럼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자주의 원칙은 민족문제 해결의 핵심이며 조국통일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성을 지키는 것은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근본담보이다.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권리와 이익을 수호할 수 있고 민족의 운명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다.

조국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조국통일이 바로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 만큼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자신의 리념에 따라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민족내부문제는 남의 힘을 빌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력사는 외세와 다른 나라의 민족내부문제를 오히려 바로 해결해준 실례를 알지 못한다.

우리 민족을 분열시킨 것도 외세이며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것도 다름아닌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다.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운동을 달가워하지 않는 미국은 오늘도 남조선과 그 주변에 최첨단살인전쟁장비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남조선호전세력과 야합하여 대규모의 북침전쟁연습소동을 광란적으로 벌여놓으면서 겨레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고있다.

민족의 생사존망과 직결된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게 된다면 우리 민족의 권리와 이익을 지킬 수 없고 민족의 운명이 외세에 통락당하게 된다. 이것은 외세에 굴종하고 그에 의존하여 나라의 자주권이 침해당하고 민족의 리익이 참혹히 유린당하고있는 오늘날의 국제현실이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기도 하다.

외세에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도로 찾는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것은 예속의 술가미를 스스로 자기 목에 거는 것이나 다름없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 누구도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가져다주지 않으며 또 가져다줄 수도 없다.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외세에게는 오히려 조선의 분열을 통하여 저들의 전략적리익을 실현하고 어

부지리를 얻으려는 흥심만 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은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모략소동에 매여달리면서 우리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청탁하는 놀음을 벌려대고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은 그 누구의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거들며 국제무대에서 반공화국압박공조실현에 혈안이 되어 날뛰는가 하면 《통일외교》라는 수치스러운 행각까지 벌이고있다. 그들이 떠드는 《평화통일》이니, 《통일외교》니 하는 것들이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도전하는 《저들주도의 통일》에 대한 국제외세에 굴종하고 그에 의존하여 나라의 자주권이 침해당하고 민족의 운명을 내맡기고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매국배족행위이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 겨레로 하여금 민족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 거족적으로 떨쳐나설 것을 그 어느때보다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자주적운영개척의 힘은 민족의 단결된 힘에 있다.

자주의 원칙은 우리 겨레로 하여금 조국통일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게 함으로써 통일의 주

체적력량을 비상히 강화하게 한다. 민족자주적립장에 확고히 설 때만이 현시기 날로 로골화되는 내외분열주의세력의 도전과 간섭, 방해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리고 조국통일운동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 수 있다.

온 겨레는 반통일세력의 사대매국적인 외세와의 공조책동을 반대하여 결연히 투쟁하여야 한다. 온 민족이 일치단결하여 미국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외세와 야합하여 민족자주위업을 해치고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남조선의 친미사대매국집단에 준엄한 칠추를 가해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민족내부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공조》를 구걸하는 수치스러운 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자주의 원칙을 통일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기여이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은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민족의 운명, 북남관계의 전도와 관련된 사활적문제이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진지도 70년이 넘었다. 우리 겨레는 너무도 오랜 세월 분열의 비극과 함께 전쟁의 위험속에서 살아왔으며 외세의 강요에 의해 지난 세기 50년대에는 전쟁의 참화까지 겪지 않으면 안되

었던 바, 내외호전세력의 무분별한 침략책동으로 인하여 조선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의 불집이 터지는 경우 그것은 불피고 핵전쟁으로 번져질것이며 그 최대의 피해자는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다. 하기에 조선반도의 평화에 대한 우리 겨레의 지향과 념원은 날을 따라 더욱 강렬해지고있다.

오늘 미국의 침략적인 대아시아지배전략과 무분별한 반공화국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 핵전쟁발원지로 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은 해마다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핵전쟁연습을 련이어 벌여놓으면서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북남관계에 엄청난 장애를 조성하여왔다. 지

난 한해동안에만도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은 온 겨레의 평화지향에 도전하여 《키리졸브》, 《독수리》, 《울지 프리덤 가디언》과 같은 대규모북침합동전쟁연습을 련이어 벌여놓고 조선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위기에 몰아갔다.

지난해 8월사태는 북남사이의 사소한 우발적인 사건도 전쟁의 불씨로 되고 그것이 전면전으로 번져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정을 위해 인내성있게 노력하는것은 공화국의 일관한 립장이며 의지이다. 공화국은 조선반도에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안을 내놓았으며 그 실현을 위한 노력을 중단해본적

이 없다. 내외호전세력의 핵위협이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엄중한 사태하에서도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불집이 터지지 않고 있는것은 전적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나라의 평화통일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공화국의 인내성있는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침략자, 도발자들이 조금이라도 자기를 건드린다면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무자비한 정의의 성전, 조국통일대전으로 대담하려는것은 공화국의 단호한 립장이다. 내외호전세력은 공화국의 인내를 오만하지 말아야 하며 위험천만한 침략전쟁연습을 걸어치우고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무모한 군사적도발을 중지하여야 한다.

김장호

얼마전에 완전성공한 공화국의 수소탄시험은 명실공히 특기할 력사적 대장거리이고 민족사적사변이다.

110여년전 《노예된 우리 2천만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통분하고 통분하다》, 《시일야방성대곡》

을 리뜨려야만 했던 우리 민족, 국력이 약했던 탓에 망국의 치욕사를 겪어

야 했던 약소국을 세계에 우러러보는 핵강국의 전례에 올려세운 대장거리이다.

더우기 100% 자체의 힘과 기술, 자기의 자원으로 이룩한 경이적인 사변이어서 가슴터질듯 부풀어오르는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이다.

화승총에서 최강의 수소탄으로, 약소국에서 자위의 핵강국으로. 민족의 국력과 지위에서 너무나 상상을 초

월하는 변화이고 비약이다.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은 누가 지켜주는것도, 신사하는것도 아니다. 오직 자기의 힘으로 지키고 빛내여야 한다.

60여년전, 인류의 머리에 첫 원자탄을 들썩인 미국은 조선전쟁

을 도발하고 우리 민족에게도 핵침화를 강요하려 하였다. 당시 미국의 원자탄공격을 피해 수많은 사람들이 남으로 피난갔으며 그렇게 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진 가족, 친척들이 헤아릴수 없이 많다.

미국은 1950년대 후반부터는 남조선에 각종 핵무기들을 대량적으로 끌어들이었다. 그 수는 1970년대 중엽에 벌써 1000여기에 달하였다. 남

조선은 세계최대의 핵화약고, 핵전초기지로 되였다. 미국은 해마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을 발광적으로 벌여왔다. 이러한 핵위협공갈책동은 세기를 이어 계속되었으며 날로 더욱 강화되였다.

이렇게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은 장장 60여년을 헤아린다. 지구상 가장 적대적인 교전상대가 대량의 핵을 쥐고 압살광기를 부리고있는 조건에서 공화국은 부득불 핵보유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것은 주권 국가의 정정당당한 자위의 조치였다.

이번에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더욱 강력해진 공화국의 핵역력은 공화국민이 아닌 전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정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정의의 보검이다.

핵은 침략자의 손에 쥐여지면 인류에게 재난을 가져다주는 무서운것으로 되지만 정의의 손에 쥐여지면 제국주의자들이 몰아오는 핵전쟁 불구름으로부터 민족과 인류를 구원하는 자위의 억제력으로 된다.

공화국이 최강의 수소탄까지 보유하게 됨으로써 이제 미국의 대조선침략정책은 서리맞은 호박신세가 되고말았다.

핵에는 핵으로. 공화국은 병진로선의 기치높이 자위의 역제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가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천만년 미래를 확고히 담보해나갈 것이다.

김연희

민족공동의 합의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공화국은 올해 신년사에서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합의를 귀중히 여기고 그에 토대하여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갈것을 호소하였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여기에는 지금까지 년대를 거치며 각급에서 이룩된 북남합의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어있다. 하기에 온 겨레는 북남합의들이 하루빨리 리행되어 통일의 전환적국면이 열리기를 바라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부질없는 체제대결을 추구할것이 아니라 민족의 총의가 집대성되어 있고 실천을 통해 그 정당성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해나가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기간 남조선당국은 6.15공동선언을 포함한 북남합의들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로 하여왔다.

지난해 6.15공동선언발표 15돐기념민족공동행사가 진행되지 못한 한가지 사실만 놓고보아도 그를 잘 알수 있다. 지난해 3월에 북과 남의 민간단체들이 모여앉아 6.15공동선언발표 15돐 기념행사를 북과 남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치를것을 합의하였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그 무슨 《비정치화》를 운운하면서 남측대표들의 행사참가를 끝내내 가로막음으로써 민족공동행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북과 남이 따로따로 기념행사를 가지지 않으면 안되였다.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행위는 북남공동선언의 진수를 거세하고 그 리행을 가로막으려는 비렬한 반통일책동이 아

닐수 없는것이다.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는 통일과 분열,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남조선당국은 지난해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의 합의에 역행하거나 대화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민족공동의 합의를 부정하고 대결과 전쟁의 길로 나가면는 불속에 뛰어드는 부나비처럼 자멸을 앞당기는 어리석은 짓이다.

온 겨레는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통일운동을 더욱 거족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기여이 열어나갈것이다. 리복순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조선통일방안 영국, 가나 정계인사 지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지지하여 영국, 가나 정계인사가 5일과 6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영국혁명적공산당(광스-레닌주의) 총비서 마이클 찬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년사에서 밝히신 조선통일방안들과 조선당과 정부의 대외정책적립장은 매우 정당하다.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통하여 조선의 통일문제가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얼마나 절박한 과제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문제와 직결되어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오늘 자주권수호는 모든 나라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승승장구하고있는 조선은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책동을 짓부시면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미국은 조선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가나민족민주대회 부총비서 조지 라우손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각하께서는 신년사에서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정부의 립장을 명백히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 밝히신 조선통일방안들은 조선의 통일과 조선반도와 지역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다.

본사기자

시 묶 음

열 어 가 자 자 주 통 일 의 새 시 대

기 다 렸 습 니 다

김 태 룡

눈부시게 밝아온 새해
2016년의 이 아침
얼마나 기다려온 겨울이니까
통일의 경륜 펼쳐주실 원수님
간절히 기다려 기다려온 새해입니다

아, 이해에도
겨레의 운명 통일대진군의 조타
역세인 손길로 틀어쥐시고
반통일의 거센 광풍 쳐갈기며
온 민족을 이끌어 진두에 계실 원수님

듣고싶었습니다
마디마디 심장에 퍼처럼 흘러들어
진함없을 힘이 솟는 그이의 말씀
우러러 뵈옵기만 해도
우주를 안은듯 넓어지는 가슴
걸어갈 앞길이 환하게 트입니다

지닌 사랑 불갈으시어
심금 터놓으시는 그 진정 가슴에 마쳐
그이의 뜻에 겨레가 열광하는 날
새해의 이날처럼 이해의 끝까지
겨레는 오직 그 뜻을 따라
원수님을 따라 노도쳐가렵니다

기다려 저절로 오지 않고
불러 오지 않는 조국통일
온갖 도전 짓부셔 기어이 안아와야 할
오, 자주통일의 새시대
그 시대를 이 강토에 열어가자고
원수님 온 겨레를 부르십니다

산악이 막아선들 두렵겠습니까
격량이 막아선들 주저하겠습니까
그이를 모셔 그이가 겨레와 함께 계시어
자주통일 새시대를 향한 겨레의 발걸음
힘이 넘칩니다 기세충천합니다

그이 아닌 그 누가
우리 겨레의 운명 지켜줄수 있단 말입
니까
그이 아닌 그 누가
통일의 진로 열여줄수 있단 말입니까

기다려 기다려온
그이를 뵈옵는 새해의 아침
쫓구치는 통일의 열기
삼천리강토에 불길로 타번지는 새해여
통일조국에 그이 높이 모실
통일의 새해로 겨레는 나아갑니다

겨 레 여 말 해 보 자

리 송 일

남녘과 해외의 겨레들이여
새해의 첫 아침 우리
가슴터놓고 말해보자
무엇때문에 한피줄인 우리가
오늘까지 남남처럼 갈라져 살아야 하는가

일떠서자 북과 남 해외의 겨레들이여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 짓부셔버리고
자주통일의 새시대 열어나가자!

분렬의 아픔 백발로 엮고
그 한을 끝끝내 못 풀고 떠나간 이들
통일을 위해 피도 눈물도 많이 뿌렸건만
오늘도 이 땅엔
찢겨진 혈육의 아픈 상처 깊어만 가고
외세가 몰아오는 전쟁의 불기를 떠돌고
있다

여기저기 민족문제 들고다니며
외세공조 구걸하는 매국노들
동족대결로 살길 찾는 무리는
한줌밖에 안된다
통일대오는 그 천백배이거늘

그 천백배의 힘 하나로 합치면
반통일세력 이 땅에서 쓸어 못 버리랴
통일의 대오 하나로 일떠나선다면
그 기개로 통일조국 이루지 못하랴
우리 겨레의 힘은 강하다

정녕 말해보자
이 강토우에 분렬을 피하는자 몇이고
통일을 바라는이 그 얼마인데
원한의 분계선 들어내치지 못하고
왜 아직도 통일을 속망으로만 안고 사는가

우리 민족끼리!
마음도 심장도 그 뜻으로 합치고
그 뜻으로 통일의 대통령도 열자
이 강토 가로지른 분계선 들어내고
통일의 새 력사
자주통일 새시대를 삼천리에 펼쳐가자!

이제 더는 하루한시도
마르지 않는 피눈물 흘릴수만 없거니

통 일은 누구도 가져다주지 않는다

김 윤 식

이 강토와 혈육이 갈라져 산
비극의 분렬사를
더는 잊지 말자 했건만
그 70년 넘어선 쓰라린 아픔안고
우리 또 새해를 맞이해야 한단 말인가

새해정초부터 한해의 마감까지
외세와 벌려놓은 침략전쟁연습
어느 하루인들 총포성 멧은 날 있었고
동족대결의 화약내 가셔진 날 있었는가를

마음속에 다시 번져 더듬어본다
2015년의 날과 달들을
헤어보라, 겨레여 그 365일에
우리끼리 마주앉은 날 과연 며칠이며
분렬주의자들 외세와 《국제공조》 떠들어댄
수치의 날들은 과연 얼마였던가를

우리 민족 분렬시킨것도 외세
통일을 가로막는 암초도
다름아닌 미국과 그 추종세력
너무도 많은 고통과 불행을 준 외세에게
말이 되는가
민족의 운명, 통일을 청탁한다는것이

돌아켜보자

력사를 돌아보아도
민족에게 불행을 들썩인 외세는 있었어도

민족의 흥망 열어준 외세가 없었고
분렬의 수난사를 돌이켜보아도
외세가 준것은 쓰라린 피눈물뿐

홀려온 력사는 말해주고있지 않느냐
그저 믿을것은 우리 민족 우리 겨레
력사의 교훈이 터치는 소리
그 누구도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가져다줄수도 없다!

새해에 가슴치며 울려오는 이 진리
겨레여, 뼈에 새기자
2016년 이해를 더는
외세공조, 외세결탁으로 얼룩진

어 머 니 들 의 소 원

김 송 림

새해엔 누구나
마음속에 품은 소망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애타게 바란다 했다
그러면 이 땅의 어머니들
새해에 바라는 소망은 그 무엇

수치의 기록장으로 만들수 없어라
분렬의 종지부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새 아침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 민족 지향과 요구에 맞게
이해를 자주통일 날과 달로
우리 함께 엮어나가자

오, 새해 2016년
자주의 기치 더욱 높이 들어야 할 해여
사대매국의 력사 끝장내고
나가자 자주의 한길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 굳게 뭉쳐
나가자 통일의 오직 한길로

그것은 평화
우리 아이들 해맑은 웃음이
전쟁의 포연에 그슬려지지 않기를
온갖 꽃 만발한 평화로운 강토에서
행복하게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전쟁의 두터운 먹구름
언제까지 아이들 앞길에
불안의 그림자로 떠돌게 할수 없노라
어머니들 이 소원이
세월에 속절없이 문히울수 없노라

사랑으로 가슴부푸는 어머니들이라면
누구나 가슴에 품고 사는 이 소원
그래서 이 땅의 누구보다도
어머니들의 이 간절함
그리도 더 진한것이거니

아이들을 사랑하거든
삼천리의 평화가 귀중하거든
핵전쟁연습을 그 가슴으로 막아나서자
사랑하는 자식들 눈동자에
맑고 푸른 하늘을 담아주자

이 강토에 전쟁의 불 일어난진다면
수난과 불행을 당할것은 우리 겨레뿐
이 땅우에 흐를것은 동족의 피눈물뿐
자식없는 어머니들 피절은 곡성은
저 구천에 사무치리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자고
그리도 뜨겁게 호소하시는
철세위인의 뜻 받들어 일떠서자
사랑의 힘은 무한타 했거늘
그 사랑의 힘으로 전쟁도화선 끊어내
치자

세월을 넘어 가서질줄 모르는

크고 뜨거운 사랑을 가슴에 지닌
북과 남, 해외의 어머니들이여
어머니들의 소원 민족의 소원
파감히 펼쳐나 투쟁으로 이루자
새해 2016년의 하늘
맑고 푸르게 펼쳐여가자

이 길 밖 에 없 다 !

김 영 일

얼마나 통일이 귀중하시었으면
겨레를 얼마나 사랑하시었으면
새해의 첫 아침
그이 겨레의 운명 조국의 운명을 두고
그처럼 절절한 말씀 하시는것이라

순간에 무너져내렸던 격동의 시대
하나가 된다는것이 통일을 이룬다는것이
얼마나 가슴벅찬 희열인가를
우리 누구나 절감하지 않았더냐

민족공동의 통일대강
조국통일3대원칙
6.15와 10.4선언
이를 통일의 드림없는 기치
불변의 이정표로 세워주시는
아, 민족의 어머니 김정원수님

시련이 많다고 탄길 찾으랴
어렵고 힘겹다고 주저앉으랴
이 길을 벗어나면 영원한 분렬
돌로 갈라져 사는 민족의 수치
두고두고 세상앞에 씻을수 없거니

민족이 사는 길
통일의 길은 이 길밖에 없어
온 겨레를 불러일으키신 원수님
이 길로 가자 통일대강이 밝힌 길로
헛디딤없이 오직 곧바로

이 길밖에 없다 민족의 념원 이루는 길
이 길 아닌 다른 길은 없다
통일로 가는 그 길은
통일의 대헌장 이는
없으면 못사는 겨레의 심장

더 말해 무엇하랴
통일의 그 헌장이 삼천리에 펼쳐놓은
환희의 시대 걱정의 시대
그 시대를 살아본 겨레는 말한다
분렬을 잊고 통일에 산
그때의 나날들 정말 잊을수 없다고

누구도 빼앗지 못하리라
누구도 없애지도 못하리라
민족이 추켜든 통일의 대헌장
그 뜻으로 그 념원으로
새해의 날과 달은 변함없이 흐르리라

세월도 녹이지 못한 대결의 얼음장이

민족공동의 통일대강
그 대강이 있어 통일은 확고부동한것
그 기치 그 표대 추켜들고
오, 통일을 향해 거세찬 발걸음 내짚은
겨레여, 새해에 우리가 갈것은 이 길뿐이다

▶▶▶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

《 반갑습니다 》, 《 다시 만남시다 》

성공한 대중가요가수



《각- 각-》

새해의 첫 아침에 울리는 까치소리는 취재길에 오른 기자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다. 희망에 부풀어 새해의 정서를 한껏 느끼며 기자는 모란봉기슭에 자리잡은 교총아파트에 들어섰다.

《 반갑습니다 》

문을 두드려야 바로 그가 나왔다. 이미전부터 TV로 많이 알려진 모습이었지만 실지 마주해보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반달같이 고운 눈매, 머루알같이 반짝이는 까만 눈동자, 오목 선 코날, 가름한 얼굴에 함박 웃음을 담은 얼굴은 같은 녀성의 눈으로 보기에 그립같이 아름다와 반할 정도였다. 새해를 축하한다는 기자의 인사에 리경숙 선생도 고운 목소리로 화답했다.

《반갑습니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그의 입에서 너무나도 귀에 익은 《반갑습니다.》의 말이 나오자 순간 새해의 즐거움이 배로 더해지는 듯했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방안에 들어서니 아늑한 가정분위기가 환몽에 와닿았다. 리경숙선생을 만나보기는 처음이지만 사실 20여년전부터 구면이나 같았다. 그도 그럴것이 기자는 어릴 때부터 그의 노래를 즐겨들어왔고 얼굴을 익혀왔기 때문이었다. 기자만이 아니라 누구나 그러할 것이다.

《집에 들어설 때 《반갑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니 리경숙선생을 만났구나 하는 실감이 더 들었습니다.》

《이제는 너무도 입에 오른 말이어서 사람들을 만나면 이 말부터 나가게 된답니다.》

사실 우리 겨레가 누구나 사랑하는 노래 《반갑습니다.》는 가수 리경숙 선생과 많이 얽혀져있다.

이곳의 11층 2호에 기자가 만나려는 취재대상이 살고있었던 것이다. 새해의 첫 취재로 누구를 하겠는가 하는 고민 끝에 와닿은 기자의 걸음이었다.

그 첫 취재대상은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평양제1음악학원 교원인 리경숙선생이다. 전 보천보 전자악단의 가수 리경숙은 남조선과 해외에도 잘 알려져있다.

그가 처음으로 이 노래를 부른것은 1991년 9월 일본방문공연때였다. 재일동포들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감격해하는 그들을 보고 자기자신도 놀랐다고 한다. 그렇게까지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려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그후 동포사회에서는 리경숙이라는 이름보다 《반갑습니다.》가수로 불리워왔다. 20여년이

나어린 가극배우, 영화배우로

《아직도 30대로 보이는데 실례이지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호호호... 사실 오늘이 제 나이 46살이 되는 날입니다.》

《그럼 새해에 생일 축하인사도 같이 해야겠습니까. 생일을 축하합니다.》

20대 초엽의 나어린 처녀로 겨레의 사랑을 한몸에 모으며 가수로서 전성기를 누렸던 리경숙, 세월의 흐름은 그를 어느덧 40대 중반의 녀성으로, 두 자식의 어머니로 되게 하였다.

리경숙선생은 1970년 1월 1일 평양시 평천구역 평천동에서 3남매의 맏딸로 출생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기관사였고 어머니는 렬차원이었다. 소녀시절에 평양 학생소년궁전에서 예술체조를 배웠던 그의 어머니는 몸매뿐 아니라 얼굴도 고왔다고 한다. 리경숙선생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빼여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며 자

랐은 오늘도 그 노래는 겨레가 애창하는 노래로 되고있다.

특히 6.15공동선언의 채택이후 이 노래는 남조선과 해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통일행사장들에서는 어김없이 이 노래가 울리곤 했다.

남조선출판물들도 《보천보전자악단의 대표작의 하나는 《반갑습니다.》이다. 《동포 여러분 형제 여러분/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얼싸안고 좋아 웃음ियो 절싸안고 좋아 눈물일세》 가수 리경숙이 부른 이 노래는 따라 부르기 쉬운데다 간절 한 통일의 념원이 담겨있어 우리 겨레 누구나 즐겨부르고있다.》고 전하였다.

지난해 금강산에서 진행된 홀어zien 가족, 친척상봉 때도 이 노래가 울리며 상봉자들의 눈물을 작서주었다. 그토록 겨레의 사랑을 받는 《반갑습니다.》의 주인공 리경숙선생과 이야기 나누었다.

《아직도 30대로 보이는데 실례이지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평양련화유치원에서 노래를 배운 그는 평양련화인민학교(당시)에 입학한 후 4년동안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에서 어린 순이역을 맡아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다.

평양련 광고등중학교(당시)시절에는 혁명가극 《피바다》에서 어린 갑순이역을 맡아 《울지말아 울남아》를 절절하게 불러 관람자들의 눈물을 뜨겁게 했다.

가극에 어린 배우로 출연했던 그는 15살때 예술영화에도 출연하였다. 우연히 자기네 학교에 왔던 영화연출가의 눈에 띄어 나어린 《배우》로 뽑혔던 것이다.

조선예술영화 《너교원》에서 정미소에 팔려 갔던 소녀가 어린시절의 리경숙선생의 모습이였다.

이렇게 되어 그는 어린 시절부터 가극배우, 영화배우로 예술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사람들이 리경숙선생의 노래를 좋아하는것은 대중가요가수이기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원래 저는 노래를 서정적으로 부르는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가수가 되기 전에도 최삼숙가수의 노래를 좋아했고 최삼숙가수의 노래를 들으며 창법을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리경숙선생이 보천보 전자악단의 배우로 선발되어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가수로 되기까지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랑의 손길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저의 노래를 하나하나 들 어주시고 저자신도 미처 몰랐던 재능의 싹을 찾아 주고 보내주시었습니다. 그이께서는 저의 노래를 들어주시고 목소리가 부드럽고 무대움직임이 자연스러울뿐아니라 물동도 아주 좋다고, 가식이 없는 것이 좋다고, 가수는 이렇게 순박하여야 한다고 분에 넘치는 치하도 해주셨습니다.》

특히 그가 노래 《아리랑》을 형상하던 나날은 배우로서 한걸음 성장한 계기로 되었다. 리경숙선생이 《아리랑》을 부르기 전까지만 하여도 그 노래는 민요로서 주로 고음가수들이 불렀다고 한다. 리경숙선생이 불렀을 때 인민들의 호평은 대단했었다.

《음악의 천재이신 우리 장군님의 지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습니다. 민요양상의 노래는 생각지 못했던지라 처음에는 두려웠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좋은 선물

행복 넘치는 가정

사람들은 대개 인기배우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무척 호기심을 갖는다. 기자도 역시 같은 심정이였다.

《세대주도 보천보전자악단에서 바스기타연주를 하였던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을 소재로 하여 전자음악을 창조해야 한다는 그의 교시를 받아안고 창조의 열정을 바쳐 완성했습니다. 조선사람이라면 《아리랑》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노래자체가 정말 멋있습 니다.》

리경숙선생이 부른 노래는 짧기 어려울 정도로 많지만 하나하나가 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노래인것으로 하여 생생히 추억되고있는 노래들이다.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신념과 의지의 찬가》,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 《아리랑》, 《나의 어머니》, 《반갑습니다》, 《도시 처녀 시집와요》, 《내 이름 묻지 마세요》, 《운명의 갈림길》, 《추배를 들자》, 《다시 만남시다》...

그후 가정을 이루고 무대를 떠나면서부터 리경숙선생은 이제는 교원으로서 예술인후비들을 훌륭히 키워내는 사명만이 남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추억의 노래》 공연무대에 자기가 서게 될줄 어이 알았으랴.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예술인들을 하나하나 불러주시어 화려한 인민극장의 무대에 내 세워주시었던것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조선로동당 창건 70돐경축 1만명대공연에도 출연하였다.

《생각지 못했던 공연무대에 출연하여 노래를 부르고나니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이 하도 고마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화성에서 책임부원으로 일하고있는 세대주 김영일은 무척이나 호방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쾌활한 리경숙선생과 호방한 김영일이 잘 어울린다고 기자가 말하자 세대주는 대번에 손사래를 쳤다. 《우리 집사람성격이 어

떠했는지 않니까? 결혼기엔 쾌활해보여도 처녀시절엔 어찌나 새침했는지 들어했답니다. 오죽하면 처녀때 《가시도치》란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풍담이 아닙니까? 지금의 경숙선생을 봐선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가시를 제가 다 떼어버렸지요. 하하하》

김영일이 리경숙선생에게 반한 사연이 있었다. 어느 휴식일인가 보천보 전자악단의 성원들이 강가에 나가 미역을 감는다. 물고기를 잡아 어죽을 쑤다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때였다고 한다. 그런데 리경숙선생만은 강기슭에서 찜팡이열매를 따고있었다. 알고보니 심장병을 앓는 어머니에게 보낼 약재였다. 그 모습에 (저 처녀의 심장은 뜨겁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한다.

《남아 키워준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 조국도 뜨겁게 사랑하고 동지들도 열렬히 사랑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인연은 맺어졌습니 다.》

그들의 사랑은 결혼으로 이루어져 아들 남준이를 낳았다. 리경숙선생은 지난해 4월 김책공업종합

대학에 입학한 아들자랑을 하였다.

이번에는 김영일이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평양제1음악학원에 다니는 12살 난 딸애의 자랑을 하였다.

《우리 부부를 예술인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에 예술로써 보답하라는 의미에서 딸애의 이름을 예은이라고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봐선 어머니처럼 꽤 성공할것 같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으며 가족오락회를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어머니의 피아노선률에 맞추어 남준이와 예은이가 노래를 부르고 아버지의 은은한 기타선률이 울리는 가정, 누구나 부러워할만 한 가정이였다.

《자식들도 잘 키우고 학생들도 잘 키워낼 결심입니다. 2년전 첫째 자들을 졸업시켰는데 그들중에는 TV연속극 《방랑벽》의 주제가를 부른 가수 한송희도 있답니다. 최근에 모란봉악단의 배우들을 비롯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신인 가수들중에 우리 학원졸업생들이 많은데 그들처럼 재능있는 예술인후비들을 많이 키워낼 결심입니다.》

《 다시 만남시다 》

어느덧 시간은 퍼그나 지나갔다. 취재는 끝났지만 쉬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잊혀지지 않는 인상깊은 새해의 첫 취재였다.

마지막으로 새해에 《통일신보》지면에 남길 말이 없는가고 물었다.

《《통일신보》니까 남녘동포들이 많이 보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해년신사에서 올해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갈것을 호소하시었는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6.15시대처럼 남녘의 겨레들과 얼싸안고 《반갑습니다》, 《다시 만남시다》를 부를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남시다.》 다시 만나자는 그의 인사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의 소원대로 언젠가면 북과 남의 우리 겨레가 다시 만나 얼싸안고 기쁨에 겨워할 날이 올가.

리경숙선생의 집을 나서는 기자의 가슴에 그가 불렀던 《다시 만남시다》의 노래선률이 절절히 와닿았다.

백두에서 하나로 우린 하나의 겨레

헤어져서 얼마나 눈물 또한 얼마였던가 잘 있으라 다시 만나요 잘 가시라 다시 만나요 목매여 소리칩니다 안녕히 다시 만나요

본사기자 김준경



미래과학자거리를 보며 (5)

자기의 힘, 자기의 것으로

인민들이 향유하는 최상의 문명이 어떤것인가를 한눈에 알아볼수 있게 해주는 희한한 별천지, 미래과학자거리는 자강의 힘으로 일떠세운것으로 하여 더우기 경관을 자아 내는것이다.

하나의 작은 도시를 방불케 하는 그 방대한 거리를 일떠세우는데 소요된 자재들은 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것들이다. 세멘트, 강재는 말할것도 없고 건물외벽에 붙여진 갖가지 색타일들, 집집마다에 갖추어진 가시대와 장식장 등 현대적인 고급가구와 비품들 그리고 구색에 맞게 꾸려진 현대적인 봉사망들에 들어찬 상품들도 다 국내의 원료와 자재,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들이다.

미래과학자거리에 자리잡고있는 창광상점만 보아도 매대들에 꽂아 들어찬 경질유리그릇들과 수직그릇들, 체육기재들과 물동놀이감들, 일용잡화들과 약키류들, 식사도구들

과 갖가지 공구들을 비롯하여 수백종에 수만점의 상품들이 다 국산제이다. 평천삼일도특산물상점에서는 무려 200여가지의 갖가지 국내산 식료품들을 판매하고있다.

보면 볼수록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를 더해주고 밝은 래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으로 가슴설레이게 하는 미래과학자거리이다.

공화국의 인민들이 잘사는것을 달가와하지 않는적대세력의 고립압살과 제재책동은 악랄하고 그칠새없지만 자립경제의 토대와 기둥이 굳건하여 자체의 원료와 자기의 힘과 기술로 웅장화려한 주택지구를 짧은 기간에 건설하고 인민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향상을 도모하고있는 공화국이다.

일찌기 경제적자립을 떠나 부강조국을 일떠세우려는것은 모래우에 집을 세우려는것과 같다는철리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후 건국의 첫기슭에서부터 자강, 자립의 길을 선택하시고 한평생 자력갱생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시어 자립적민족경제의 든든한 기틀을 마련하시였다.

몇해째 계속된 자연재해와 반공화국적대세력의 고립압살책동으로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조이지 않으면 안되었던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국고에 남아있는 얼마 안되는 자금마저 나라의 기계제작공업발전에 돌려 자력으로 기계제작공업의 정수인 CNC기술을 개발하고 현대화의 자랑찬 새력사를 펼칠수 있는것도 무엇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 현재의 신념을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대로 자체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 경제강국건설에서 절실하게 요구되

는 원료, 연료, 자재들을 국산화하는것과 함께 설비의 현대화도 국산화를 기본으로 하는 원칙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발전시켜나가기로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이시다.

그이께서는 찾으시는 공장과 일터마다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자면 공장발전전략을 잘 세우는것과 함께 제품생산과 질제고, 설비관리와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곤 하신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경제전반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시려는 그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반드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이루어시려는 그의 원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속에 이 땅에 지식경제시대를 대표하는 현대적인 생산기지가 날이 늘어나고있는것이다.

지난해에만도 평양시버섯공장, 원산구두공장, 평양강냉이가공공장, 평양메기공장, 5월9일메기공장, 1월18일기계종합공장을 비롯한 새 세기 표본, 표준공장들이 새로 일떠서거나 개건현대화되어 증산의 동음 높이 올리고 있으며 하늘에서는 우리의 기술, 우리의 손으로 만든 비행기가 날고 땅속에서는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가 달리는 자랑찬 현실이 펼쳐질수 있었다.

지난해 12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생선공정의 무인화, 무균화, 무진화를 실현한 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힘과 기술로 무조건 우리 식으로 해나가려는 립장과 관점을 기둥처럼 세우고 국산화실현에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가는 사람들은 업어주고싶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현대화실현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의 성과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자립적민족경제를 더욱 발전시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지름길을 마련하시며 국력을 비상히 강화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강성부흥의 앞날이 가까워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공화국의 이번 첫 수소 자위적권리이며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는 정정당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 정의의 핵보검으로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하는 민족사적사변이다. 더우기 몇 안되는 나라들의 독점물로 되어왔던 수소탄의 시험에서 적대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며 자체의 힘과 기술로 단기간내에 완전성공함으로써 강성변영할 민족의 창창한 미래를 펼쳐주었다.

공화국을 핵보유에로 떠민것은 다름아닌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극악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이다.

오늘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천추에 용납 못할 전대미문의 정치적으로고립과 경제적봉쇄, 군사적압박을 가해오다 못해 핵참화까지 들의우려고 발광하는 최악의 지경에서 강행되고있다.

미국의 핵타격수단들이 무기로 드나들고 미국의 방대한 핵살인무기들이 우리 민족을 향시적으로 겨누고있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은 세계최대의 열점지역, 핵전쟁의 발화점으로 되고있다. 나라의 정상적발전을 가로막고 나아가 《제도붕괴》를 실현하기 위한 미국주도의 대조선경제제재와 모략적인 《인권》소동은 주권국가에 대한 용납될수 없는 전횡이고 도발이다.

이처럼 존엄과 자주권, 생존과 안전을 엄중하게 위협당하는 조건에서 자기 지킬 힘을 키우는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위적권리이며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는 정정당당한 조치이다.

공화국은 정부성명에서 핵무력발전의 보다 높은 단계로서 진행된 이번 수소탄시험이 미국을 위수로 한 적대세력들의 날로 가증되는 핵위협과 공갈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적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조치를 엄숙히 선언하였다.

지금 전세계가 공화국의 수소탄보유에 대하여 법적 쟁고있다.

돌이켜보면 한세기 전만 해도 힘이 약해 지구상에서 사라질번한 민족이었다. 나라를 강점한 외세에게 내들 무기조차 변변한 것이 없어 죽창과 몽둥이로 대항하고 화승총으로 최신탄무기와 맞서 싸워야 했던 우리 민족이 오늘날에는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추고 세계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적대세력들은 공포와 진공에 휩싸여 《제재》를 부르짖으며 발악하지만 공화국의 자주적인 결단과 그 성공을 찬탄하고 지지하는 목소리는 행성에 차넘치고있다. 민족의 존엄과 국력은 하늘에 닿았다.

수소탄을 보유한 최강의 억제력을 갖춘 선군조선이 가는 앞길을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으며 공화국은 최후승리의 축포를 자랑스럽게 터쳐올리게 될것이다.

강현철



자강의 기적소리를 울리며... 《야, 새 지하전동차다!》 《어머니, 저길 보세요. 우리로동계급이 만든 지하전동차예요.》 2016년 1월 1일 아침, 희망에 넘쳐, 행복에 겨워 부모형제들과 친우들을 찾아 지하철도역에 들어선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봉-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정답게 설인사를 보내듯 기적소리를 울리며 공화국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 새 지하전동차가 역구내에 들어섰던것이다. 비단우에 꽃이라고 공화국의 경제력을 보여주는 지하구진, 지하철도역에 멋들어진 새 지하전동차가 척들어서니 역안은 더 환층 눈부시고 환해졌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사람들은 연방 탄성을 터치였다. 언제면 자력자강의 창조물인 새 지하전동차를 타볼수 있을가 하고 바라던것이 새해의 환희로움을 더해주며 이루어졌으

니 왜 그렇지 않으랴. 흥분으로 설레이며 사람들은 너도나도 새 지하전동차에 올랐다. 《우리의 과학자들과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새 지하전동차를 만든 소식을 들은것이 엇그제같은데 벌써 운행을 시작했구만요.》 《지금이야 아침저녁으로 강산이 변하는 새로운 천리마시대, 만리마시대가 아니요.》 《볼수록 멋쟁이미남자처럼 잘 생겼는걸.》 ... 차칸에 들어선 사람들은 현대적으로 꾸려진 전동차의 내부를 둘러보며 한마디씩 하였다. 그들중에는 려행에 편리하게 만든 안전손잡이를 비롯한 의자받침대를 생 각같은 눈길로 살펴보는 로인들이며 목신한 의자에서 잠시도 가만있지 못하고 들썩이는 아이들, 차칸안의 온도와 습도, 도착할 역 등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운행정보장치를 바라보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대학생들, 뉘니뉘니해도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이 제일이고 자강력이 제일이라며 엄지손가락을 내흔드는 사람들도 있었다. 가족들과 함께 지하전동차에 오른 김종래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작업반장 박문선은 《새해의

첫날에 이렇게 우리가 만든 전동차를 타니 기업소를 찾으시고 지하전동차를 보아주시며 것처럼 만족해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눈앞에 어려온다.》 고 말하였다. 그의 말을 들으며 사람들은 밤늦도록 시운전의 동음을 울리는 전동차를 타시고 현신의 로고를 바쳐가신 철세위인의 인민사랑이 어려와 가슴뜨거워짐을 금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 밑에 하늘에서는 자체로 제작한 비행기가 날고 땅우에서는 1년을 10년맞잡이로 눈부신 변혁이 일어나고 지하에서는 국산화된 지하전동차가 달리는 현실이 펼쳐지고있다 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려있었다. 기자와 만난 오영철기관사는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를 운전해보니 다른 나라의것에 비해 성능이 대단히 좋고 속도와 제동상태도 나무랄데 없다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었다. 경쾌하게 울리는 기적소리는 자강력이 제일이라고 소리높이 웨치는듯싶었다. 본사기자 홍범식

인민생활문제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공화국에서는 인민생활문제를 천만가지 국사가운데서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국가적힘을 집중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지난해 공화국에서는 미래과학자거리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과학기술전당과 같은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이 가는 곳마다에 훌륭히 일떠섰다. 《이제어경》이라는 새로운 선경이 펼쳐지고 사회주의바다향기가 집집마다에 넘쳐났다.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공화국에서는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 새해벽두부터 총공격을 벌리고있다. 무엇보다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의 가장 큰몫을 맡고있는 농업부문근로자들이 새해농사차비로 들끓고있다. 농업부문에선 우량종종과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쳐 알곡생산량을 늘이기 위한 대

책을 년초부터 면밀하게 취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농장들에 갖가지 영농기구들과 영농물자들을 적극 지원하고있다. 도처의 축산기지와 수산부문, 양어장들과 남새온실, 버섯생산기지에서도 생산을 늘여 인민들이 실지로 덕을 보게 하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이에 뒤질세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생산을 만부화하여 새해 첫 전투부터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특히 국산화에 기초하여 생산의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평양메기공장을 비롯한 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혁신의 맨 앞장에서 달려나가고있다. 경공업공장들에서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 수요가 높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상품, 명제품들을 만들어 내놓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있다. 건설부문에선 중요생산시설들과 교육문화시설, 살림집들을 시대의 본보기, 표준이 되게 최상의 수준에서 최대의 속도로 일떠세우며 건설의 대변

영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기 위해 총공격을 벌리고있다.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고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이고 의지이다. 공화국에서 희망찬 2016년과 더불어 인민생활향상에서는 더 큰 전환이 일어나게 될것이며 인민들이 심장으로 부르는 로동당탄성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끝없이 울려떨어질것이다. 본사기자 강류성



-평양양말공장에서의-

《개헌》이 《공약》을 위한 선거구 확정과 지난해 12월에도 합의

지금 남조선에서는 1월 《림시국회》가 열리고 있다. 4월 《총선》을 위한 선거구 확정과 지난해 12월에도 합의 못 보지 못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어느 하나도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말싸움만 벌여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 인민들로부터 여전히 《관장국회》, 《무능국회》로 지탄받고 있다고 한다. 바빠맞은 것은 남조선 집권자이다. 자기의 주요 집권실적으로 내세우려는 《개헌》안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들어와서도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개헌》안들이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하면 4월 《총선》 이후 새로 소집되는 《국회》 때까지 사장된 채 먼지만 쌓이게 될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남조선 인민들로부터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로 낙인되어 환멸과 불신의 대상으로 된 남조선 집권자

이다. 또 지난해말에는 몇푼의 돈으로 백년숙적의 일 본군성노예범죄를 백지화한 것으로 하여 《박근혜 탄핵하라》, 《박근혜를 처형하라》라는 민심의 분노에 취우명을 찾아야만 했었다. 《정책》 실패와 사대매국행위로 인한 《정권》 위기에서 탈출하고 민심의 분노를 경제문제에 돌리기 위해서 남조선 집권자는 어떻게 하나 자기의 《개헌》안들을 통과시키려고 모지름을 쓰고 있다. 새해벽두부터 《경제활성법안》과 《노동개혁법안》을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고 아래것들을 달구어대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그 무슨 《대국민담화》라는데서 《일자리 비상상황》이니, 《구조개혁》이니를 운운하며 《경제혁신 3개년계획》과 《4대개혁》을 떠들었지만 남조선인민들이 받은 것은 무자비한 공안 탄압이고 《세월》 호참사와 같은 끔찍한 재난뿐이 었기 때문이다. 남조선 집권자가 내든 《개헌》이라는 것들도 따지고 보면 재벌들을 위한 개악이고 《테로방지법》이니 하는 것들도 철저히 인민들을 더욱 짓누르고 저들의 집권안정

을 위한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남조선 집권자가 《새누리당》을 내세워 야당을 압박하며 《개혁》안과 악법들을 통과시켜보려고 해보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것이다. 《새누리당》은 앞에서는 《민생우선》을 웨치지만 돌아앉아서는 《개혁안》은 들쭉치고 친박근혜와와 비박근혜가 선거구확정과 후보선출방법 등 《총선》을 둘러싼 파벌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 임기종말을 바라보는 집권자의 호통에 순종하기보다는 4월 《총선》에서 세력권을 확장하여 다음기 《대선》의 터를 잡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본 모양이다. 자기의 《치적》을 위해 악을 쓰는 남조선 집권자와 인민들이 어떻게 되든 세력권확장을 위해 싸움질만 벌리는 《새누리당》, 《림시국회》의 현실을 보면서 남조선인민들이 단언하는 것은 무엇인가. 역시 물고기는 대가리부터 썩기 마련이며 아무리 단장을 해도 구새먹은 나무는 기둥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저들의 집권을 위해서는 백년숙적과도 서슴없이 입을 맞추고 반인민적 정책을 무더기로 생산해내는 썩은 정치에 남조선 민심은 이미 등 돌린 지 오래다. 본사기자 김정혁

민심을 낚기 위한 기만적인 술책

《새누리당》이 4월에 있게 될 《국회》의원선거를 겨냥한 민심몰아당기기놀음에 또다시 매달리고 있다. 지난 5일 《새누리당》은 《4.13총선》을 위한 이른바 《공약개발본부》 편 편 《국회》의원선거에 써먹을 《공약》을 다음달 말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이날 《새누리당》 대표라는 자는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공약개발》을 운운하며 《〈위민전봉〉(국민을 위해 선봉에 선다는 뜻)의 자세로 국민과 나라 발전에 힘이 되는 공약을 만들겠다.》고 떠들어대며 소리를 높여놓았다. 이것이 인민들의 환심을 낚아 앞으로 있게 될 《국회》의원선거에서 어떻게 하나 이겨보려는 보수집권세력의 교활한 술책이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지금껏 남조선에서 현 보수집권세력이 근로인

민들을 위한다는 별의별 《공약》들을 수없이 내뿜었지만 어느 하나도 실현된 것이 없다. 최근 남조선에서 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는 《어린이무상보육예산》 편성문제를 놓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알려진 것처럼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보수집권세력은 술한 《공약》들을 쏟아내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어린이무상보육공약》이다. 그것은 3살부터 5살까지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교육하는데 드는 돈을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으로서 현 집권세력인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내뿜었던 것이다. 그러나 보수집권세력은 《세입의 부족》과 《재정의 고갈》을 운운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에 드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들에 떠넘겼다. 지난해 5월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보육료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의 지출경비로 의무화하였다. 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내야 할 자금부담까지 떠안게 되었다. 이것은 가뜩이나 많은 빚을 지고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고있는 부채는 17조 1000억 원에 달한다. 이것은 전체 예산의 28.8%에 달하는 것이다. 이런 형편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에 돈을 돌려쓰면 교육을 비롯한 다른 부문에 대한 자금지출이 줄어야 할 판이다. 하기에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은 《〈대통령〉선거 때 박근혜는 어린이보육과 교육을 《정부》가 완전히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지만 당국은 매년 예산편성시기만 되면 이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가하는 등 공약리행을 회피해왔다.》고 반발하며 그에 대한 예산편성을 거부해나섰다. 남조선당국이 《검찰에 대한 고발》이니 하며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지방

자치단체들은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며 강경히 나오고 있다. 현 보수집권세력들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민심을 꼬드기기 위해 내놓았던 핵심공약들은 보 다싶이 모두 이런 형편에 처했다. 이런자들이 이제 와서 정치적목적실현을 위해 기만적인 《공약》놀음에 또다시 매달리고 있으니 얼마나 뻔뻔스러운 행위인가. 《희망의 새시대》니 《국민행복시대》니 하며 화려한 《공약》들을 내세워 권력을 차지하고는 언제 그랬냐 싶이 수염을 쏘고 나앉은 보수집권세력들이야말로 사기와 협잡의 능수이며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집단이다. 민심이 역행하는 자들은 인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본사기자 주광일



파멸에 처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업살정책

반세기를 훨씬 넘어 감행되는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업살정책은 공화국의 자주권을 우리 민족의 생존권을 심히 위협하는 극단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이다.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조미관계를 개선할 데 대한 공화국의 공명정대한 요구를 한사코 외면한 채 지금도 포악무도하고 집요한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매여달리고 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침략적인 대아시아 지배전략과 잇닿아 있다. 세상이 다 아는 일이지만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잡은 조선반도에 침략의 검은 마수를 뻗어왔다. 남조선은 저들의 현대판식민지로 완전히 장악한 미국은 전조선

을 우리 민족에게 항시적인 고통과 불행 가져다 주고 있으며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에 엄청난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허나 미국은 오산하고 있다.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업살정책은 실현될 수 없으며 미국이 개여지면 개여졌지 무진막강한 핵억제력을 갖추고 령도자의 두리에 천만민이 일심단결하여 강성국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공화국은 필승불패이다. 미국의 끊임없는 침략과 도발에 대처하여 자위의 핵보급을 역세게 틀어쥐고 그것을 질량적으로 강화해온 공화국은 지난 1월 6일 자체의 힘과 기술, 지혜로 첫 수 소탄시험에서 완전히 성공하여 수 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의 전열

에 당당히 들어서게 되었다. 이것은 공화국이 평화를 사랑하지만 자기의 평화와 안전을 그 누구에게도 절대로 구걸하지 않으며 자기 힘으로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는 철의 의지와 불패의 힘을 만천하에 과시한 것으로 된다. 공화국의 수 소탄시험 성공은 미국의 뿌리깊고 포악무도하며 그토록 집요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초래한 결과인 동시에 그의 총과산으로 된다. 미국이 악을 쓰며 횡포한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매달릴수록 공화국은 더욱 강대해지고 미국의 운명은 파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무분별한 탐욕과 어리석은 광기는 종말을 앞당긴다. 미국이 이제는 자기의 처지를 깨달아야 한다. 본사기자 서희

착취, 불평등, 억압을 일삼는 권력에 맞서 투쟁을 선포한다

남조선의 민주로총 투쟁선포문 발표

남조선의 민주로총이 새해에 즈음하여 4일 투쟁선포문을 발표하였다. 선포문은 새해 남조선의 전망은 어둡다고 하면서 집권자만이 《희망찬 새해》를 운운하고 보수언론들은 《민주주의의 파임》을 부르짖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보수세력들은 로조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고 몰아대고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와 민영화만이 해결책이라고 력설하고 있다고 하면서 선포문은 실업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모두의 새해소망은 변화라고 주장하였다. 선포문은 민주로총은 착취, 불평등, 억압을 일

삼는 권력에 맞서 2016년 투쟁을 선언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2016년 총파업투쟁을 선포한다.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려는 로동계약은 로동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로동착취선언이다. 2016년에도 여전히 로동자의 삶을 통째로 삼켜버릴 기회만 엿보고 있다. 로동악법의 《국회》 직권사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더 쉬운 해고, 불리한 취업규칙적용을 노린 《행정지침》을 이미 공개하였다. 이 로동계약의 싹이 뿌리채 뽑히지 않는 한 민주로총은 총파업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 로동계약에 맞선 총파업은 계속될 것이다. 2016년 민중총궐기투쟁을 선포한다. 지난해 민중총궐기를 통해 우리는 반민생, 반

민주 《정권》에 대한 민중의 분노를 확인하였다. 《정권》은 민중의 요구를 묵살하고 《폭력, 소외》로 매도하고 있다. 광기 어린 공안탄압에 의존하며 연명해가고 있다. 《정권》의 폭압이 거셀수록 2016년 민주로총의 쟁점은 더 굳건해질 것이다. 민중총궐기는 계속 될 것이다. 2016년 최저임금, 비정규직투쟁을 선포한다. 민주로총은 2016년에도 저임금로동자들의 생존을 위해 파감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다. 《정부》가 차버린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리간시키는 자본의 지배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민주로총은 조직력을 강화하여 해고에 맞설 것이다. 반전평화투쟁을 선포한다. 동아시아평화를 강화하려는 미일군사동맹의

야욕이 로골화되고 있다. 이에 편승한 《정부》의 굴종정책도 계속되고 있다. 력사와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넘긴 최근 일 본과의 협상 역시 침략적인 군사동맹이 그 배경이다. 민주로총은 성노예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청년학생 및 시민들과 함께 일본군성노예범죄를 폭로하는 소녀상을 지킬 것이다. 일본은 성노예문제만이 아니라 강제징용과 강제징병 등 모든 역사적범죄를 덮어버리려 한다. 민주로총은 강제징용만행을 폭로하는 로동자상을 세우기 위한 사업 등 대중운동을 펼칠 것이며 굴욕협상에 분노하는 민중과 함께 싸울 것이다. 우리는 평화동일을 원한다. 민주로총은 남북로동자 교류사업을 계속 밀고나갈 것이다. 본사기자

인권지옥에서 울리는 소리

대학생 알바지옥 (1)

《금수저》가 아닌 대학생에게 아르바이트(알바)는 삶의 중요한 일부다. 이들은 학비와 생활비를 벌고자 절실하게 일한다. 그러나 알바자리는 구하기도, 그곳에서 버티기도 쉽지 않다. 고려대 재학생들이 쓴 《나의(혹은 내 친구의) 알바체험기》를 소개한다. 우리 청춘의 생생한 맨얼굴이다. 《지독히 운수좋은 날》 서울 압구정동 고급 일본식당에서 일한적이 있

다. 손님들은 과도하게 비싼 음식값이나 술값에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주문한 음식을 대부분 남겼다.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이자 월급날인 그 날은 《지독히 운수좋은 날》이었다. 사장이 월급 봉투에 상금도 넣었다고 한다. 한 손님은 담배심을 시킨 뒤 수고비로 10만원을 줬다. 모든 사람이 그동안 고생했다며 격려해주는 것 같았다. 밥이 깊어... 주차장으로 최

고급 스포츠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차주인은 단골손님이자 내 또래 부

자집도런님, 열쇠를 받아 들고 주차하던중 차에 작은 흠집을 내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저질렀다. 불같이 화를 내는 《금수저》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내게 잘 해주던 식당사장은 보상과 합의 과정에서 나를 외면했다.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내 손엔 월급봉투가 없었다. 담배심부름값으로 받은 10만 원이 전부였다. (오병찬, 언론학 대학원) (남조선잡지 《주간동아》 2015년 12월 23일호에서 게재)